

김산호 회화극본

The story of Holy Buddha

부처님

제1화 샤카족의 탄생 ②



마야(환상)의 땅, 사마르카타(神들의 집) 히말라야 산기슭에 천축(天竺, 인도)인들과는 옹모나 풍습을 달리하는 북방 출신족들이 있었으니, 이들을 '샤카족'이라 부른다. 샤카(Sakya)족이 산악족이었다는 또 하나의 증거로 우리는 오늘날까지 불교를 상징하는 글자로 근자를 사용함을 볼 수 있다. 그런데 근자는 본래 티베트문자로서 근은 '영원(永遠)'을 의미한다.

눈덮인 히말라야(혹은 히말리)산의 기슭에 자리잡았던 샤카(Sakya)족의 정체는 과연 무엇인가? 불전(佛典)에는 설산(雪山)의 남쪽이라 했다. 지금까지의 문헌들은 이 문제에 관련한 별 시비없이 본문으로 들어가 버리곤 한다. 그러나 현재들은 회화극본(繪畫劇本)이라는 새로운 장르로 그려지기 때문에 부처님의 용모를 가능한 한 진실되게 그려야만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부처님이 과연 어느 종족 출신으로 어떤 모습인가를 밝히는 일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여러 가지 문헌을 종합해 보건대 샤카족은 대략 B.C. 800년경 설산의 기슭에 정착한 것으로 보인다. 부처님 당시에는 인구가 약 100만 정도로 보이는 소왕국으로 평화를 사랑하며 그들만의 종교와 문화에 높은 긍지를 지니고 있어 남쪽의 아리안 제국들의 눈에는 오만한 종족으로 비치고 있었다.

흔히 부처님을 석가모니(釋迦牟尼)라 하는데 이는 샤카 무니(Sakya-muni)의 한자표기를 이두식으로 발음한 것이다. '샤카'는 종족을 의미하고 '무니(Muni)'는 아리안족의 입장에서 보아 비(非)아리안 계통의 승려를 가리키는 존칭어이다. 리그-베다 시절엔 '침묵하는 사람'의 뜻이었으나 시간이 흘러가며 '사고하는 사람' 혹은 '성인(聖人)'의 뜻으로 그 의미가 변해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또다시 부처님이 아리안족이 아니었다는 확증을 얻게 되어 본서는 부처님의 용모를 아리안의 모습으로 부터 벗어나는데 주저하지 않게 되었다.



우리는 불전의 본문을 열기 전에 몇가지 사전지식을 가져야 하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샤카족의 본거지이며 부처님의 탄생지인 룸비니 동산을 살펴보는 것이다.

지금의 네팔(NEPAL)남쪽 국경 가까이 카팔라 바스투(迦毘羅城)라는 작은 왕국이 있었다. 네팔의 수도 카트만두로부터 서쪽 200km 지점이다. 룸비니 동산은 네팔의 루판데히 지방에 위치해 있는데 '루판데히(Rupandehi)'는 '땅의 여신 루판데히 여신의 성지'라는 의미이다. 바이라와(Bhairawa)에서 서쪽으로 조금가면 테라이(Terai)지역이 나타나는데 룸비니 동산은 그곳에 있다. 룸비니(Lumbini)는 부처님의 외할머니 이름이다.

지금은 황량하지만 부처님 당시엔 수목이 울창하고 수많은 꽃나무와 여러곳에 연못이 있는, 세간에서 견줄바람이 아름다운 동산이었다고 성전(聖典)에 기록되어 있다.

이제 우리는 부처님 당시 인도사람의 종교관에 대하여 살펴볼 차례가 되었다. 당시 상류사회를 구성하고 있던 아리안(Arian)들에겐 인류최초의 성전이라는 '리그베다(Rig-Veda)'가 있었다. 신(神)을 찬미하는 노래와 인간성의 자유 등 모든 철학적인 사상을 다루고 있는 성전이다. 그 책에는 다신교(多神敎)에서 범신론(汎神論)까지 각종 신관(神觀)을 보여주는데 대체로 보아 자연신(自然神)과의인화(擬人化)된 신들로서 빛, 물, 어둠, 불 등을 신격화시켜 숭배하니, 전쟁의 신 '인드라(Indra)', 태양의 신 '미트라(Mitra)', 불의 신 '아그니(Agni)', 하늘의 신 '바루나(Varuna)'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신에 충실하며 또 한편으로 자신(Atman)을 찾으려는 이들은 집안을 안정시키는 즉시 출가하여, 숲이나 아슈람(Ashram)에서 자아(自我:Atman)의 진리를 체득(體得)하기 위하여 갖은 고통을 감수하며 각자 스스로의 방법으로 자신에 적합한 수련법을 개발하여 궁극적으로 사회에서 존경받는 브라만(Brahman)이 되려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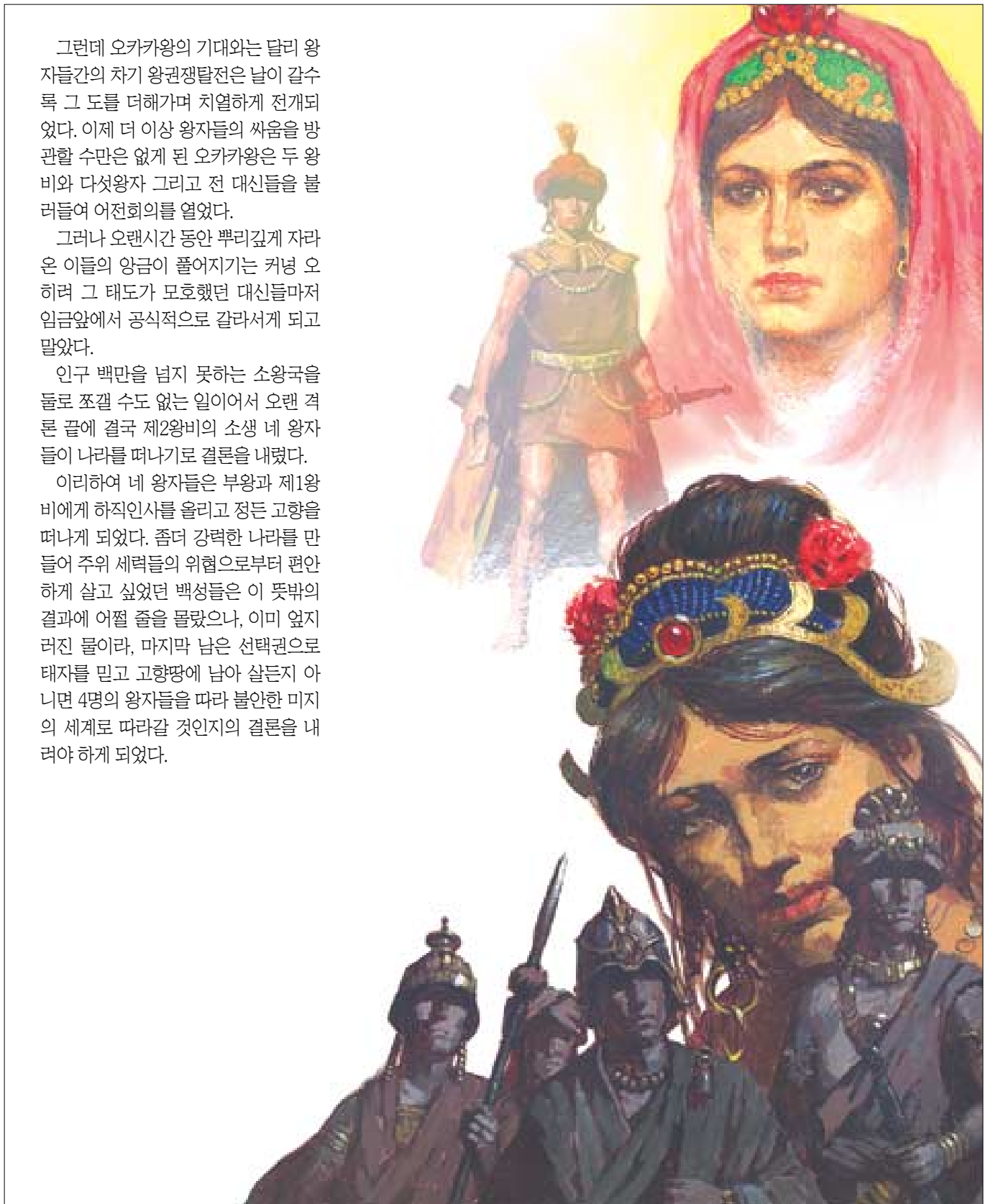
샤카족들은 스스로를 이 세상 최초의 임금님인 마하삼마대왕의 혈통을 이어받은 선택된 종족이라 믿으며 최상의 자존심과 긍지를 간직하고 있었다.

문헌에 보이는 최초의 샤카족 나라 이름은 '부다가' 국으로서 오카카(Okkaka)가 왕이었는데 그이가 바로 유명한 감자왕(甘蔗王)이다.

감자의 팔리어는 '오카카(Okkaka)' 혹은 '이크쉬바쿠(Iksvaku)' 인데 그 의미는 '사탕수수'다. 이때 감자왕은 두 명의 왕비(王妃)와 같이 있었다. 감자왕의 제1왕비에게는 '장수왕자'가 있었는데 곧

'부다가' 국의 태자가 되었다. 한편 제2왕비로부터도 4명의 꽤 넘치는 왕자들이 있었다. 감자왕은 그의 젊은 왕자들이 힘을 합하여 남쪽의 아리안 제국들을 압도하는 강국으로 만들어 주기를 소원하고 있었다.

그 당시 '부다가' 국의 남쪽에는 아리안 제국인 코살라(Kosala)와 마가다(Magadha)국이 큰 세력을 떨치면서 인도 천하의 패권을 놓고 다투고 있었고, 그 외에도 갠지스강 남쪽으로 바사(Vatsa)등의 강성한 세력들이 있어서 '부다가' 정도의 이민족 소왕국은 그 독립을 유지하기가 힘겨운 상황이었다.



그런데 오카카왕의 기대와는 달리 왕자들간의 차기 왕권쟁탈전은 날이 갈수록 그 도를 더해가며 치열하게 전개되었다. 이제 더 이상 왕자들의 싸움을 방관할 수만은 없게 된 오카카왕은 두 왕비와 다섯왕자 그리고 전 대신들을 불러들여 여전회의를 열었다.

그러나 오랜시간 동안 뿌리깊게 자라온 이들의 앙금이 풀어지지는 커녕 오히려 그 태도가 모호했던 대신들마저 임금앞에서 공식적으로 갈라서게 되고 말았다.

인구 백만을 넘지 못하는 소왕국을 들로 쪼갤 수도 없는 일이어서 오랜 격론 끝에 결국 제2왕비의 소생 네 왕자들이 나라를 떠나기로 결론을 내렸다.

이리하여 네 왕자들은 부왕과 제1왕비에게 하직인사를 올리고 정든 고향을 떠나게 되었다. 좀더 강력한 나라를 만들어 주위 세력들의 위협으로부터 편안하게 살고 싶었던 백성들은 이 뜻밖의 결과에 여쩍 줄을 몰랐으나, 이미 앞지러진 물이라, 마지막 남은 선택권으로 태자를 믿고 고향땅에 남아 살든지 아니면 4명의 왕자들을 따라 불안한 미지의 세계로 따라갈 것인지를 결론을 내려야 하게 되었다.